

북부산림청, DMZ편치볼둘레길 활성화 방안 협의

등록 2020-11-17 17:51:39 | 수정 2020-11-17 17:51:59



(사진은 강원 양구군 편치볼 전경)

[원주=뉴시스]장경일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이 민·관·군·학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DMZ편치볼 둘레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북부산림청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DMZ편치볼둘레길 운영·발전 협의회는 편치볼둘레길을 중심으로 주민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자 북부산림청 주관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했다.

협의회에는 북부산림청과 강원 양구군, 관내 소재 군부대, DMZ자생식물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해안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편치볼둘레길 관련 국가·지자체의 올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내년도 둘레길 운영 방안 및 연계 관광코스 개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수천 청장은 "DMZ편치볼둘레길의 지역적 특수성을 활용, 차별화된 지역산림 관광지가 되도록 유관기관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DMZ편치볼둘레길은 양구군 해안면 일대에 평화의 숲길, 먼뫼재길, 만대벌판길, 오유밭길 등 4개노선 총 73.2km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에 걸쳐 조성된 국유 숲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